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 거래일대비 2.30원 하락한 1,204.80원에 마감

8일 달러-원 환율은 미 실업률 호조에 전 거래일 대비 2.30원 하락한 1,204.80원에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202.0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이후 환율은 미국 실업률 호조에 따른 투심회복에 1,200.70원까지 낙폭을 낮추었다. 그러나 저가매수 및 결제수요로 1,200원에서 하단이 지지되며 1,204.8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시장 평균환율은 1,204.20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원 재정환율은 1,100.17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02.00	1205.50	1200.70	1204.80	1204.2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00.15	1110.63	1094.20	1108.99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34	-1.31	-3.07	-7.53
결제환율(수입)	0.3	0.27	-0.44	-2.68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전망

연준 완화정책 지속기대 ... 1,190원 후반 중심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美 연준의 완화정책 지속기대 및 경제재개 기대를 반영하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04.80원) 대비 8.65원 하락한 1,196.0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美 연준이 FOMC회의를 이틀 앞두고 메인스트리트 대출조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메인스트리트 대출 최소금액을 하향조정하는 동시에 대출 가능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FOMC회의 직전에 나온 추가 부양책에 FOMC에서도 완화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됨에 따라 시장은 위험자산 랠리를 이어갔으며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지속되는 경제재개기대감도 투심회복에 일조하였으며, 금일 환율은 이상의 요인을 반영하여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저가매수와 수급측면에서 결제수요가 우위인 점은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92.33 ~ 1199.33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76.29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8.65원 ↓
	■ 美 다우지수 : 27572.44, +461.46p(+1.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1.8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404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